아내여, 내 사랑이여!

▶ 2019년 11월 1일

다시, 아내는 환자용 침대에 실려 중환자실로 향했다.

점심 때 쯤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은 뒤 대여섯 시간 후쯤이었다. 삐기는 손상 및 심한 염증 때문이라 했다.

결코 낮설지 않은 중환자실이지만 침이 마르고 다리가 떨렸다.

입을 통해 호흡기관이 연결되고 신장투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두 명 성당 환자의 소리침을 제외하면 무섭도록 조용한 병실이 공포 속으로 밀고, 절제된 간호사들의 바쁜 모습들이 또한 두려움으로 빠지게 한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 경.

신 중턱, 이미 깊은 어둠 속에 빠진 외딴집에 들어서니 그 캄캄함 속에서 나를 기다렸을 애완견 보미가 두 발을 들어 반가움을 표했다. 불이라도 켜두고 갈걸. 워낙 정신이 없었다. 내 집이지만 어둠이 삼고 적막이 무서웠다.

간단히 씻고 자리에 누우니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꿈인 양, 그러면서도 또렷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5년 전,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실려 가던 아내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다.

그때도 호흡기 삽관이며 신장투석까지 25일간을 중환자실에 있었다. 누구 하나 살아 날 가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살아서 중환자실을 나왔고 한 달여의 재활 입원 끝에 '내 집 돌아오기'에 성공했다. 집을 떠난 지 꼭 두 달 만이었다. 아직 대소변을 화실하게 가릴 만큼은 아니었지만 내 곁으로 돌아와 준 아내가 고맙고 감사했다. 그 전에도 중환자실 치료는 몇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응급실에서 실시되던 숱한 검사과정을 거치면서 집에 가겠다며 발버둥 치던 아내였다. 어쩔 수 없이 손과 발을 침대에 고정시키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번은 그때와 사뭇 달랐다. 오늘은 저항도 말 한마디도 없이 만사가 싫은 듯 의료진이 하는대로 몸을 맡기려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한쪽 팔에서 다리까지 마비가 온 듯 쥐가 내렸다. 핑핑 소리 내어 울었다. 통곡이었다.

몇 번이나 전화기를 잡았다가 내려놓았다. 멀리 있는 큰아들에게 연락을 할까 싶었으나 그만 두었다.

다음 날, 면회 때는 혼자가 아니었다. 큰아들 내외가 내려오고 동생도 왔다. 아내는 신경안정제 때문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

▶ 2019년 11월 5일_ 입원 5일째

며칠 동안 호흡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염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교수님의 이야기였다. 60%까지 올려졌던 호흡기계는 40%까지 내려졌고 그래도 호흡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혈압도 조금은 높았으나 유지되고 있었고 투석기 때문인지 콩팥 수치도 평소 유지하던 2.0, 그리고 hg도 10점 대였다. 나빠지지 않는다는 담당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 자꾸만 묻고 싶은 궁금증이 많아졌다. 안정제를 줄인 때문인지 아내는 눈을 뜨고 있었다. 내 손을 꼭 잡아보라는 말에 힘을 주어 손을 잡았고 발도 움직였다. 그게 고마워 또 눈물이 나왔다.

다음 날 아내는 다시 짐이 들어있었다. 아침에 호흡과 혈압이 불안정하여 다시 안정제를 올렸다고 했다.

병원비 안내 문자가 왔다. 600만원 중 400만원을 우선 납부했다.

큰아들 내외가 수술실 퇴근 후 내려오겠다는 걸 만류했다.

그보다 문제는 작은애였다. 작은애는 지난 8월 중국회사에 입사했다. 퇴근을 하면 바로 엄마와 전화를 하는 것도 작은애의 일과였다. 그런데 요 며칠 엄마와의 전화가 안 되는 이유가 워낙며 따지듯 묻는데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일반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가 안 될 일도 아니었다. 작은애의 눈물 소리를 끊으며 소리쳤다.

"지금까지 20년을 네 엄마만 보고 살아왔단. 살려서 집으로 데려올 테니 맘 단단히 먹고 근무 잘해라!"

피눈물이 났다.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나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꼭 살려서 함께 올 것이라고.

▶ 2019년 11월 7일_ 입원 7일째

면회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의사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Hg 수치가 떨어져 내부에 출혈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겠다는 연락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온몸이 붉은 꽃 같은 피가 찬 듯 통통 부었다. 금방이라도 피부를 뚫고 피가 흘러내릴 듯 검이 날 지경이었다. 3년 전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이렇듯 피가 고인 적이 있었다.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한 달쯤 있으면 좋아질 거라 했는데 정말 시간이 흐르니 피멍울도 없어지고 붓기도 가라앉았다.

급하게 차를 달려 병원으로 향했다. 한 시간 여의 CT 촬영이 끝나고 오후 5시 30분 쯤 집에 도착했다.

다음 날.

면회 기록을 쓰려는데 아내의 침상 번호가 달랐다. 격리병동이었다. MESA메니실린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되었다는 거였다. 전염성이 강해 격리시켰으며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 중이라 했다. 다음날은 아내가 격리병실에서 나와 있었다. 공기로도 전염되는 다른 환자 때문에 옮긴 것이라며, 병실에 들어올 때 입은 비닐복 위에 소매가 있는 파란색 비닐복을 겹쳐 입도록 했고 비닐장갑과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 2019년 11월 10일

폐기종이라며 아내의 몸에 작은 관이 삽입되어 있었다. 폐에 공기가 차 빠는 것이라 했다. 호흡기는 35%로 어제보다 줄어 있었다. 신경안정제를 줄여선지 아내가 우릴 알아보고 눈을 깜박거렸다. 큰아들 내외와 손자가 와서 눈을 뜬 아내를 보고 위로를 받은 게 큰 위안이었다.

"여보! 좀만 더 고생해! 꼭 살아서 집에 가자. 응!"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나도 큰아들 내외도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다.

▶ 2019년 11월 11일

밤 8시가 넘어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9시까지 병원에 도착해 달라는 얘기였다. 몸속 어느 곳에서 출혈이 있는지 CT 촬영을 할 것이라 했다. 오른쪽 팔은 더 부풀어오르다 색깔도 진해졌다. 손가락도 통통 부은 채로였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술이라도 몇 잔 먹고 취한 채 잠이라도 잤으면 싶었지만 먼제 병원에서 전화가 올 줄 모르니 그도 안 될 일이었다. 밤새 진땀되는 공포가 너무도 무서웠다

▶ 2019년 11월 16일

그런대로 아내의 병세는 유지되고 있었다. 기관 삽관된 호흡기를 빼려는 바드는 한두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실패했다는 의사선생님의 얘기였다.

류마티스내과 교수님의 협진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다.

20년 전.

새로운 세기가 열린다던 2000년 3월 첫 일요일.

새로 옮긴 학교의 일요일 당직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니 아내의 발음이 이상했다. 고개를 들려보니 눈이 사시가 되어 있었다. 어둠이 깔린 도시의 막힘을 뚫고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땐 119가 뭔지 응급실이 왜 있는지 참 철없는 걸론 25년 째 맞벌이 부부였다.

호흡기가 꽂히고 숱한 검사 끝에 용혈성빈혈이라는 진단이 떨어졌다. 핏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Hg가 4.5까지 떨어진 상태라 했다. 하루 24일의 스테로이드는 아내의 얼굴을 통통 붓게 했다. 젊고 건강했던 아내는 응급실 일주일, 그리고 입원 보름 동안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렇게 아내의 투병은 시작되었다. 내 나이 꼭 쉰이 되던 해였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찾아온 건 대상포진이었다. 붉내는 마약 패치까지 붙여야 할 만큼 아내를 괴롭힌 무서운 병마였다. 그리고 간, 폐, 심장은 말할 것도 없고 혈소판은 물론 피부까지 무차별한 염증 공격을 받아야 했고 발병 5년 후에는 전신성 루프스로, 혈액종양내과에서 류마티스내과로 이전되기에 이르렀다.

결핵으로 1년여의 항생제 투여, 갑상선암 수술 및 유방외 파젯병으로 방사성 치료, 그리고 어깨뼈의 골절로 쇠붙이 연결 …

어느 땐 촬영실 문밖에까지 들리던 소리.

"이런 환자를 보내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고?"

또 어느 땐

"스테로이드 환자가 이십 년 다되도록 살아서 치료하러 온 것도 처음이네"

그래도 아내 곁엔 협진을 오셨다는 류마티스내과의 교수님이 계셨다. 저번 중환자실 입원 때에도 아내는 그 교수님이 오신 걸 알고 있었다. 퇴원 후에도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었다.

큰애 부부가 먼 곳으로 발령이 났지만 내가 선뜻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것도 교수님 때문이었다. 나도 아내도 교수님은 아내를 살게 해주는 신앙과 같은 존재였다.

▶ 2019년 11월 19일

호흡기삽관을 빼겠다는 교수님의 의지와는 달리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는 느낌이었다. 목을 절개하여 호흡기관을 연결해보겠다던 이야기도 중단된 상태였다. 입안에 고인 피를 빼내려 호스가 이어져 있었다.

밤 9시 경 의사선생님의 전화가 있었다. 호흡이 불안정하다며 더 위험 시 다시 전화할 것이라 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누워 있을 수만도 없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가로등 불빛이 적막을 삼키기에 밤의 신자락은 너무도 고요했다.

6년 전.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2년 여 만에 나는 새로운 걸심을 했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가자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좀 더 공기가 맑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속으로 이사하자고.

외로움이나 쓸쓸함은 사치이다.

아내를 살리는 길이라면 충분히 해볼 일이다. 남은 내 인생 맑은 공기와 바꾼다는 게 얼마나 근사하고 보람찬 일인가 말이다.

대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이사를 했다. 40여 년의 학교 근무 동안 어느 학교에서도 근무해보지 않았던 낯선 시골 산 주변에 25평 형 집을 지었다. 다행히 마을 진입로 전까지는 4차선 도로이고 류마티스 교수님이 계시는 류마티스 권역 대학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급한 경우 응급실이 있는 같은 대학 종합병원까지도 40분 정도이니 크게 걱정될 일은 아니었다.

처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5년 전 바로 그 중환자실을 겪었지만, 그런대로 잘 견뎌낸 아내였다. 칼륨 때문에 중환자실, 그리고 폐렴으로 몇 차례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경우는 있었지만 어찌어찌 내 곁을 지켜 준 고마운 아내였다.

▶ 2019년 11월 20일

떨리는 몸을 끌고 중환자실을 들어섰다.

아내는 호흡기를 문 입을 벌린 채 가쁜게 숨을 쉬었다.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다. 가족들을 부르라는 교수님의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때렸다.

큰 아들 부부와 여동생, 그리고 제수씨가 급하게 서울에서, 인천에서 내려 왔다. 병원 옆 모텔에 방을 잡았다.

▶ 2019년 11월 21일

스테로이드 양을 대거 늘렸다는 교수님의 말씀이었다. 며칠 전 떼어냈던 투석기가 다시 돌고 아내는 어제보다는 좀 더 안정된 듯 보였다.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때문이려니 싶었다. 교수님과 의사선생님이 겉에서 뭐라 얘기했으나 들리지 않았다. 서울의 처제가 내려왔다가 언니를 보고 올라갔다.

집으로 가고 싶었다. 모텔을 나와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탔다.

병원에서 급하게 부를 때 외에는 버스를 탔었다. 시골 마을 곳곳마다 들르느라 시간은 많이 소요되었으나 이게 편했다.

TV를 켜 놓은 채 깜박 잠이 들었는지 악몽이었다. 온 몸이 땀에 젖은 것 같았다.

전화가 왔다.

지금 병원은 오라는 전갈이었다.

냇째 동생이 병원의 연락을 받고 먼저 와 있었다.

"2019년 11월 22일 00시 08분 사망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렇게도 싫어하던 호흡기를 입에 문 채 내 곁을 떠나갔다.

▶ 2020년 1월 22일

아내를 보낸 지 두 달.

내일 모래면 설날이라며 붉은색 숫자인데 어떻게 보내야 할지 두렵다.

지난 20년의 투병 기간 동안 홀연 눈물만큼이나 삼킨 눈물도 셀 수 없을 텐데 그 눈물이 하나도 마르지 않았는지 사람 앞에 잘 수가 없다. 누가 알 한마디만 까내도 눈물부터니 사람 곁이 무섭다.

하루 시간을 보내려 발버둥 쳐보지만 방안에서는 힘들다. 나와 아내가 다니지 않던 목욕탕을 찾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집을 나섰다가 목욕탕 앞에서 발길을 돌리길 여러 번이다. 아무 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

밤은 더디죽 길다. 초저녁 깜박 잠이 들면 10시 쯤 눈을 뜨고 그때부터는 뜬 눈이다.

울다가 그쳤다가 또 운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울고, 아내가 쓰던 모든 물건이 눈물을 부른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눈물이 온종일 마르지 않는다.

마을 부녀회장님의 전화다. 받지 않으면 계속 울릴 터라 응답을 했다. 오늘 점심밥을 하니 마을로 내려오란다. 마을 회관에서는 일주일에 3회씩 점심을 한다. 노인 일자리 취업이다.

실은 지난 12월 말까지 나는 마을 이장직을 맡았었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 마을에 와서 어쩌면 억지 비슷하게 이장을 맡은 게 지난 2016년이었다. 다행히 이심이명 기까운 할머님들이 좋으셔서 아픈 아내를 잘 보살펴 주셨다. 농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벅찬 이장 일을 하면서도 위로를 받았던 건 아내를 살펴주시는 할머님들의 따뜻함이었다.

작년부터는 대소변 정리가 서툴러 하루에 두서너 번씩 속옷을 바꿔 입혀도 진한 냄새가 났다. 내가 말이도 심한데 할머님들은 그런 아내를 더욱 반해하셨다. 어느 땐 아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시기도 했다.

그 할머님들이 이장직을 그만두고 집에 박혀 있는 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안을 나서야 내가 산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거든 진디밭 잡초라도 뽑거라. 죽지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아니냐?'

'내일이면 큰애 부부도, 손자도, 작은애도 온다는데 그리고 그리고 있을 거니?'

나를 꾸짖는다.

20년.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았던 그 세월이 아프다.

거의 24시간 중환자실을 지키던 젊은 의사선생님과 호흡기내과 교수님, 아내의 살과 같았던 류마티스내과 교수님. 그리고 처음 발병에서 6년 동안 아내를 지켜주신 혈액내과 교수님이 생각나는 새벽이다.